

세계기도정보

- [멕시코] "마약 하면 망가진다" 멕시코, 학교서 펜타닐 예방 교육 시작
- [예멘] 자선행사의 비극... '생지옥' 예멘서 구호품 받다 최소 78명 압사
- [아프가니스탄] 유엔, '여성 족쇄' 탈레반에 "가슴 아프지만 철수" 최후통첩
- [파푸아뉴기니] 파푸아 반군, 뉴질랜드 조종사 수색하던 인니군 습격
- [태국] 태국 송끄란 연휴에 남부서 연쇄 폭탄 테러 발생
- [중동] 아랍 9개국, 시리아 내전 정치적 해결 위해 공동 노력
- [수단] 수단 군벌 간 무력 충돌... 민간인 사망자 100명 육박
- [시리아] 시리아 정권의 돈줄 'ISIS마약', 고립탈피 협상카드로 쓰일 우려
- [네덜란드] 네덜란드, 지난해 안락사 8,700여 건... 전년 대비 14% 증가
- [독일] 독일 연내 대마초 합법화... 1인당 25g까지 보유 허용
- [세계] 올 1분기 지중해서 이주민 최소 441명 사망... 6년 만에 최다
- [에콰도르] '마약 통로' 에콰도르 항구서 괴한들 총기 난사... 9명 숨져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주정부, 무슬림의 교회 출입 금지하는 '파트와'발표
- [스페인] 코로나19 이후 스페인 무종교인 39.3% 기록... 사상 최고치
- [미국] 미국, 토네이도로 교회 파괴...주차장서 부활절 예배드려



- ▶ **파 송 :**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 교회 :**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정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کم스

2023.04 멕시코에서 온 편지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4월 20일 목요일, 병원에 계시던 아버지가 퇴원하셨다. 영원한 불효자를 만들지 말아 달라며 이곳 한국으로 왔는데,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해지셨다. 그러나 아버님의 회복 소식과 함께 폐암으로 인한 장인어른의 입원 소식을 접한다. 양가 일을 섬기며, 감사하다. 연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나마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4월 4일 화요일, 엔리께 목사로부터 사진들과 함께 2023년을 시작하며 나에게 나누었던 기도제목 중 한 가지가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올 2023년을 시작하며 중남미 행복한 교회들 소속 목사들이 함께 나누는 기도제목을 받았었다. 그때 엔리께는 보육시설과 갱신소 사역을 위해 차가 필요하다며 그것을 기도제목으로 나누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차를 구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운행할 때 필요한 재정을 걱정했었다. 그리고 내 기도제목에서 그 기도제목을 제외했다. 기도조차 하지 않은 내가 부끄럽다. 이번 달 편지에 2023년을 위해 함께 나누었던 기도제목을 공유하며 기도를 요청하자.

코스타리카 비라인 행복한 교회 하비목사.....

주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 먼저 여러분을 향한 저희의 감사를 전하며 동시에 저의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제목일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곳 비라인 교회 공동체의 2023년의 기도제목이기도 합니다:

- 0-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를 닮는 공동체 되도록.
- 1-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결혼 생활을 누리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가정들이 되어 서로 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선물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 2-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멕시코 과달라하라 호세 목사.....

2023년을 맞이하기 전 예배당을 어디로 이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과 늘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다시 이 일 년이라는 여유를 가지며 주께서 준비하신 곳을 찾을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저희의 기도제목을 기쁨으로 나눕니다:

- 0-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평강과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고 모임에 힘쓸 수 있도록,
- 1- 주께서 예비한 새로운 처소를 발견하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을 지어 나갈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 2- 매주 진행되는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특히 젊은이들이 주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멕시코 사보방 엔리께/ 앙헬라 목사

- 0- 제 2의 보육시설을 위해 지금 지행중인 제자 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1- 갱신소 리모델링이 잘 진행되도록
- 2- 지속적으로 교회 주변 전도가 이루어지며 함께 할 더 넓은 예배 처소를 주시길.

쿠바의 쿠바 하바나, 해수 목사!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해수 목사님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들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저희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제가 섬기는 60여 교회를 대표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 0- 공산주의 가운데 있는 쿠바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땅 될 수 있도록.
- 1- 공산국가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 2- 저희 60여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 3- 저희 소속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곳에 남아 있는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훈련받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 4- 대부분의 쿠바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소속 60여 가정 교회가 재정 독립을 이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 5- Amfela 신학교 훈련을 통해 저희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 6- 소망을 잃어가는 이곳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격려하며 이 땅의 부흥을 함께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많은 전도자를 세워 주시길 .
- 7- 제자 지금 섬기는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연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저와 함께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며 젊은이들이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 8-저와 저희 자녀들이 잠시 러시아로 일을 하러 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쿠바 까마웨이 에드워드 목사~

쿠바 중부 까마웨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드워드 목사입니다. 에이즈로 어려움을 겪던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오랜 시간 사역을 하던 아내를 하나님께로 떠나보내며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저희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0- 올해 우리는 다른 지방에까지 사역을 확장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더 나은 복음적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 1- 또한 현재 우리 소속 목회자 그룹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저희 공동체에서 더 많은 사역자가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 2-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번달 기도제목:

- 1. 4월 말 진행될 쿠바 1차 의료품 전달과 하바나 졸업식이 은혜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 2. 중남미에 있는 소속교회 목회자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정안에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됨을 허락하여 주시길.
- 3. 귀임까지 얼마 남지 않은 한국에서 시간동안 후회없이 가정과 부모님을 잘 섬기고 다시 선교지로 귀임할 수 있도록.